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석사학위논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우울감 및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윤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우울감 및 관련요인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윤상은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우울감 및 관련요인

지도교수 한 미 아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윤 상 은

## 윤상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박 종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류소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한미아 (인)

2021년 5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                         |     |
|-------------------------|-----|
| 표 목 차 .....             | iii |
| ABSTRACT .....          | iv  |
| <br>                    |     |
| I. 서론 .....             | 1   |
| <br>                    |     |
| II. 연구방법 .....          | 4   |
|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 4   |
| B. 조사변수 .....           | 5   |
| 1. 일반적 특성 .....         | 5   |
| 2. 가정환경 특성 .....        | 5   |
| 3. 정서적 특성 .....         | 5   |
| 4. 학교생활적응 .....         | 6   |
| 5. 우울감 .....            | 6   |
| C. 자료분석 .....           | 7   |
| <br>                    |     |
| III. 연구결과 .....         | 8   |
|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     | 8   |
| 1. 아동의 일반적 특성 .....     | 8   |
| 2.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    | 10  |
| 3. 아동의 정서적 특성 .....     | 11  |
| 4.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     | 12  |

|                                 |    |
|---------------------------------|----|
| 5. 우울감 .....                    | 14 |
| B.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          | 15 |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      | 15 |
| 2.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 | 17 |
| 3.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  | 19 |
| 4.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아동 우울감 .....  | 20 |
| C.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우울감 관련요인 .....  | 21 |
| <br>                            |    |
| IV. 고찰 .....                    | 23 |
| <br>                            |    |
| V. 요약 및 결론 .....                | 27 |
| <br>                            |    |
| 참고문헌 .....                      | 29 |

## 표 목 차

|   |    |
|---|----|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9  |
| Table 2. Famil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10 |
| Table 3.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11 |
| Table 4.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 13 |
| Table 5. Depression status of children  | 14 |
| Table 6.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16 |
| Table 7.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family characteristics                     | 18 |
| Table 8.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emotional characteristics                  | 19 |
| Table 9.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School life adaptation                     | 20 |
| Table 10.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 22 |



# ABSTRACT

##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Yoon, Sang-Eun

Advisor : Prof. Han, Mi Ah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affecting children's depression among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Methods:** The study population was children in grades 4-6 who used the Gwangju and Jeonnam Community Child Center (n=224).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children's emotional characteristics, children's school life environment and depression status were assess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depression among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was  $15.31 \pm 7.70$  out of a total of 27, and the average score of depression among poverty children was  $17.58 \pm 7.09$ . Fifty-eight (25.9%) children had depression above 22 points.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depression were shown as grade, subjective economic level awareness, after-school activities excluding local children's centers, presence of after-school families, and family structure.

**Conclusion:** The depression prevalence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was higher. Policy support such as children's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would be needed to reduce children's depression, and community child centers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children's depression if continuous child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are developed for children's mental health.

**Key words** : Child, Community Child Center, Depression, Poverty

## I. 서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교육부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하였고 2020년 4월 9일부터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Kang et al., 2020). 등교제한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 학업격차, 학대와 안전문제 등 전통적인 교육취약학생이 아닌 아동에게까지 방임시간의 증가와 비대면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 문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 Kim, 2020). 비대면 및 온라인 교육은 수업을 받기 위한 컴퓨터 기기의 부재와 노후화, 가정에 인터넷 연결되지 않아 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의 미비한 인프라,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의 부족,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Kang et al., 2020).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80% 이상이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취약아동이란 소득수준이 낮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또는 각 시군구의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0).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학습지도, 방과 후 돌봄, 아동·부모 상담 등의 교육, 보호, 정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대부분은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있고, 경제적 결핍에 의해 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기회에서 배제되어있다(Jeong et al., 2016). 아동의 경제적인 빈곤은 공격성 증가, 학업수행능력 감소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정서행동장애, 심리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8). 돌봄취약아동 중 상당수는 COVID-19로 인한 온라인 학습이 불가능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돌봄취약아동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우울감이 대두되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하여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야외활동 제한, 실내생활로 인한 신체활동량의 부족은 아동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 향상의 위험이 있다(Choi, 2020).

우울과 공격성은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보인다. 우울등의 문제가 성장과정에서 지속될 경우 아동의 심리장애, 행동장애와 연결되어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 Yoon, 2014).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 현상을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천안지역 일부 초등학교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우울척도에서 22점 이상으로 정의한 우울장애가 3.1%(372명)의 유병율을 나타내었다(Choi, 2010). 그리고 아동·청소년기 우울장애 유병률은 서로 다른 연구대상, 진단 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인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 1.0%에서 8.5%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hin,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2,510의 응답자의 우울 점수는  $1.88 \pm 2.73$  이었다. 그 중 일반아동의 경우  $1.82 \pm 2.65$ , 수급아동의 경우  $2.86 \pm 3.80$ 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빈곤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점수가 높았다. 중위소득 100%미만의 아동들의 우울 및 불안 점수는  $2.14 \pm 3.35$ , 중위소득 100%이상의 아동들의 우울 및 점수  $1.72 \pm 2.52$ 이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중위소득 100%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과 돌봄취약아동을 나누는 기준으로, 돌봄취약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점수가 일반 아동에 비해 높았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아동·청소년 시기의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경험, 낮은 경제적·사회적 부모지위,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부갈등, 사회적지지 등의 가족 및 부모의 양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Shin, 2018).

돌봄취약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7). 일반아동에 비해 돌봄취약아동의 스트레스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행동장애에 비해 우울증, 조울증 등의 문제와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Wadsworth et al., 2008).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은 성인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장기추적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Poulton et al., 2002). 아동기의 우울증은 이후 많은 후유증과 사회활동의 적응문제를 유발하고, 다양한 공존질환의 유병률을 높여 정신보건의 관점에서 조기진단과 치료적 개입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Kim et al., 2009). 특히 아동기 우울증은 청소년기의 물질남용, 학업수행의 어려움, 자살기도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강조된다(Birmaher et al., 2002). Gilman 등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거주지의 불안정은 우울증의 발생과 재발의 중요한 요인이며 관해를 늦추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Kim et al., 2009). 아동기 우울이 지속될 경우 학교생활,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발달상 다양한 어려

움이 나타날 수 있고, 무단결석이나 가출 등의 비행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기 우울은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Kim, 2016).

국내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돌봄취약아동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Kim, 2019)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양육태도(Choi & Kim, 2015) 관련 선행연구가 대부분이며, 아동 우울 관련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우울증 현황은 보고되어있는 반면 돌봄취약아동의 우울 현황 및 관련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 빈곤상태인 돌봄취약아동과, 일반 아동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두 집단을 비교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체아동 중 일반아동, 돌봄취약아동을 분류하여 우울감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의 아동센터는 308개소, 전라남도의 지역아동센터는 375개소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인 초등학생 중 자기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설문을 읽고 스스로 응답이 가능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장 월례회에서 지역아동센터장들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12개소, 전라남도에서 15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27개소 센터의 이용아동 평균수는 31명이고 각 센터를 이용하는 4, 5, 6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 설문 동의서 및 보호자용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아동용 연구대상자 승낙서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 작성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도착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당일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며, 설문내용에 대하여 밝히고 싶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응답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 배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224명(일반아동 49명, 돌봄취약아동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과 동의 과정은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승인번호 : 2-1041055-AB-N-01-2020-68).

## B. 조사변수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아동 기준(일반아동, 돌봄취약아동), 아동의 성별(남학생, 여학생), 학년(4, 5, 6학년), 부모의 학력(무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대학원 졸업)을(고등학교 졸업, 대학교/대학원 졸업,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재분류 하여 이용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건강한편이다, 건강한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를(매우 건강한편이다, 건강한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재분류 하였고, 체형(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살이 찐 편이다, 매우 살이 찐 편이다)을(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살이 찐 편이다)재분류하여 구성하였다.

### 2. 가정환경 특성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아동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인식도(상위, 중위에서 상위, 중위, 중위에서 하위, 하위)를(상위, 중위, 하위)재분류 하였고, ‘내 방’ 유무(집 안에 나만의 방이 있다, 없다), 방과 후 활동(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다니는 학원이 있다, 없다), 방과 후 가족 유무(항상 있다, 가끔 있다, 가끔 없다, 항상 없다)를(항상/가끔 있다, 가끔 없다, 항상 없다)재분류 하였고, 가족구조(부모님과 산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산다, 기타)등으로 구성하였다.

### 3. 정서적 특성

아동의 정서적 특성은 가족의 정서·심리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Kim(2003)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 분위기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 이해, 무관심, 존중의 총 4문항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경청, 비밀, 관계, 대화의 총 4 문항이다. 가족 분위기는 가족과의 화합, 가족대화, 거부, 편안함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 이었다.

#### 4.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Jeon(2000)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2003)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교사관계, 학교수업, 친구관계, 학교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교류, 애정, 인정, 학교수업은 수업내용의 만족도, 재미, 주의력, 친구관계는 친구들과의 관계, 인기, 학급생활, 학교규칙은 주변활동, 행동통제, 규칙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사관계 3문항, 학교수업 3문항, 친구관계 3문항, 학교규칙 3문항 등 모두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3$ 이었다.

#### 5. 우울감

아동의 우울감은 한국판 아동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성인용 우울검사인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1961)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Kovacs, 1985)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감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로써 8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을 위해 쉬운 단어로 제작되었다(Kim, 2018).

총 27개의 항목으로 우울감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하위범주 구성되어 있다. 우울정서는 우울한 기분, 외로움 행동장애는 공격적 행동, 대인관계장애 흥미상실은 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 자기비하는 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 생리적 증상은 불면, 식욕감퇴, 피로감 등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응답자는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중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술문 1개를 골라 표시하게 된다. 각 문항의 점수는 0-2점까지이며, 응답자 각각의 우울감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가 가능하고 22-25점 약간 우울상태, 26-28점 상당한 우울상태, 29점 이상은 매우 심한 우울상태로 본연구에서는 22점 이상 아동을 우울상태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C.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6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 전체아동과 일반아동, 돌봄취약아동을 각각 분석 하였으나, 일반아동 중 우울감이 있는 아동이 없어 우울감 관련요인은 전체아동과 돌봄취약아동만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가정환경 특성은 빈도, 백분율,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정서적특성과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우울감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을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 1. 아동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일반아동 49명(21.9%), 돌봄취약아동 175명(78.1%)으로 돌봄취약아동이 더 많았다. 전체 아동의 성별은 남자아동 95명(42.4%), 여자아동 129명(57.6%)으로 여자아동이 더 많았고, 학년은 5학년 아동이 99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35명(60.3%)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이 108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132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못한 편이 13명(5.8%)으로 가장 적었다. 아동의 체형은 본인의 체형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아동이 95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이 찐 편이 17명(7.6%)으로 가장 적었다.

일반아동의 성별은 남자아동 26명(53.1%), 여자아동 23명(46.9%)으로 남자아동이 더 많았고, 학년은 5학년 아동들이 18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4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이 25명(51.0%)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30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못한 편이 2명(4.1%)으로 가장 적었다. 본인의 체형을 보통이 25명(51.0%)으로 인식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3명(6.1%)으로 가장 적었다.

돌봄취약아동의 성별은 남자아동 69명(39.4%), 여자아동 106명(60.6%)으로 여자아동이 더 많았고, 학년은 5학년 아동들이 81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1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83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102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인식하는 아동이 11명(6.3%)으로 가장 적었다. 체형은 본인의 체형을 보통이 70명(40.0%)으로 인식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14명(8.0%)으로 가장 적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 Classification | Total<br>(n=224) | General<br>(n=49) | Poverty<br>(n=175) | $\chi^2$<br>(P)   |
|------------------------------|----------------|------------------|-------------------|--------------------|-------------------|
| Gender                       | Male           | 95(42.4)         | 26(53.1)          | 69(39.4)           | 2.913<br>(0.088)  |
|                              | Female         | 129(57.6)        | 23(46.9)          | 106(60.6)          |                   |
| Grade                        | 4              | 60(26.8)         | 16(32.7)          | 44(25.1)           | 1.651<br>(0.438)  |
|                              | 5              | 99(44.2)         | 18(36.7)          | 81(46.3)           |                   |
|                              | 6              | 65(29.0)         | 15(30.6)          | 50(28.6)           |                   |
| Education level of<br>father | High school    | 135(60.3)        | 34(69.4)          | 101(57.7)          | 9.349<br>(0.009)  |
|                              | University     | 35(15.6)         | 11(22.4)          | 24(13.7)           |                   |
|                              | Without father | 54(24.1)         | 4(8.2)            | 50(28.6)           |                   |
| Education level of<br>mother | High school    | 108(48.2)        | 25(51.0)          | 83(47.4)           | 12.725<br>(0.002) |
|                              | University     | 37(16.5)         | 15(30.6)          | 22(12.6)           |                   |
|                              | Without mother | 79(35.3)         | 9(18.4)           | 70(40.0)           |                   |
| Subjective health<br>status  | Very good      | 30(13.4)         | 6(12.2)           | 24(13.7)           | 0.448<br>(0.930)  |
|                              | Good           | 132(58.9)        | 30(61.2)          | 102(58.3)          |                   |
|                              | Fair           | 49(21.9)         | 11(22.4)          | 38(21.7)           |                   |
|                              | Poor/Very poor | 13(5.8)          | 2(4.1)            | 11(6.3)            |                   |
| Subjective body<br>image     | Very thin      | 32(14.3)         | 7(14.3)           | 25(14.3)           | 2.170<br>(0.538)  |
|                              | Slim           | 80(35.7)         | 14(28.6)          | 66(37.7)           |                   |
|                              | Ordinary       | 95(42.4)         | 25(51.0)          | 70(40.0)           |                   |
|                              | fat            | 17(7.6)          | 3(6.1)            | 14(8.0)            |                   |

## 2.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전체 아동의 주관적 경제 수준 인식도는 중위수준이 103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집 안에 내 방이 있는 경우가 117명(52.2%)으로 더 많았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다니는 학원이 없는 아동이 117명(52.2%)으로 더 많았으며, 방과 후 기다리는 가족이 가끔 없는 아동이 112명(50%)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동이 131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아동의 주관적 경제 수준 인식도는 중위수준이 30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집 안에 내 방이 없는 경우가 28명(57.1%)으로 더 많았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학원을 다니는 아동이 31명(63.3%)으로 더 많았으며, 방과 후 기다리는 가족이 항상 없는 아동이 21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동이 40명(81.6%)으로 가장 많았다.

돌봄취약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 인식도는 하위 수준이 85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내 방이 있는 경우가 96명(54.9%)으로 더 많았다. 방과 후 다니는 학원이 없는 아동이 99명(56.6%)으로 더 많았고, 방과 후 기다리는 가족이 가끔 없는 아동이 9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동이 91명(52.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2. Famil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Classification                          |                | Total<br>(n=224) | General<br>(n=49) | Poverty<br>(n=175) | $\chi^2$<br>(P)   |
|---|----------------|------------------|-------------------|--------------------|-------------------|
| Perceived economic levels               | High           | 28(12.5)         | 11(22.4)          | 17(9.7)            | 17.722<br>(0.000) |
|   | Middle         | 103(46.0)        | 30(61.2)          | 73(41.7)           |                   |
|   | Low            | 93(41.5)         | 8(16.3)           | 85(48.6)           |                   |
| Private room in the house               | With           | 117(52.2)        | 21(42.9)          | 96(54.9)           | 2.209<br>(0.137)  |
|   | Without        | 107(47.8)        | 28(57.1)          | 79(45.1)           |                   |
| Private academy after school            | Yes            | 107(47.8)        | 31(63.3)          | 76(43.4)           | 6.037<br>(0.014)  |
|   | No             | 117(52.2)        | 18(36.7)          | 99(56.6)           |                   |
| Presence of family members after school | always - often | 56(25.0)         | 14(28.6)          | 42(24.0)           | 14.080<br>(0.001) |
|   | sometimes      | 112(50.0)        | 14(28.6)          | 98(56.0)           |                   |
|   | never          | 56(25.0)         | 21(42.9)          | 35(20.0)           |                   |
| Family                                  | Parents        | 131(58.5)        | 40(81.6)          | 91(52.0)           | 13.871<br>(0.001) |
|   | Single parent  | 55(24.6)         | 5(10.2)           | 50(28.6)           |                   |
|   | Etc.           | 38(17.0)         | 4(8.2)            | 34(19.4)           |                   |

### 3. 아동의 정서적 특성

전체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10.81±2.07이고, 하위 문항 중 이해가 2.88±0.86으로 가장 높으며 존중이 2.50±0.82로 가장 낮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10.49±1.85로, 그 중 대화가 2.75±1.04로 가장 높고 비밀이 2.45±0.71로 가장 낮았다. 가족분위기는 10.33±2.06이며, 가족 대화가 2.75±0.88로 가장 높고 거부가 2.19±0.79로 가장 낮았다.

일반아동의 부모양육태도는 11.53±1.97로 이해가 3.33±0.75로 가장 높고 존중이 2.49±0.74로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은 11.45±1.56으로 관계가 3.22±0.82로 가장 높고 경청이 2.76±0.63으로 가장 낮았다. 가족분위기는 11.10±0.87이고, 가족 대화가 3.49±0.68로 가장 높고 거부가 2.04±0.71로 가장 낮았다.

돌봄취약아동의 부모양육태도는 10.62±2.08이며 애정이 2.78±0.90으로 가장 높고 존중이 2.50±0.84로 낮았다. 의사소통은 10.22±1.84 대화가 2.64±1.06으로 가장 높고 비밀이 2.48±0.74로 가장 낮았다. 가족분위기는 9.95±2.07로 편안함이 2.62±0.91로 가장 높고 거부가 2.23±0.81로 가장 낮았다(Table 3).

Table 3.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 Classification        |                     | Total<br>(n=224) | General<br>(n=49) | Poverty<br>(n=175) | t<br>(P) |
|-----------------------|---------------------|------------------|-------------------|--------------------|----------|
| Parenting<br>attitude | Total               | 10.81±2.07       | 11.53±1.97        | 10.62±2.08         | 2.671    |
|                       | Affection           | 2.83±0.88        | 3.04±0.74         | 2.78±0.90          | (0.009)  |
|                       | Understanding       | 2.88±0.86        | 3.33±0.75         | 2.76±0.85          |          |
|                       | Indifference        | 2.59±0.75        | 2.61±0.79         | 2.58±0.75          |          |
|                       | Respect             | 2.50±0.82        | 2.49±0.74         | 2.50±0.84          |          |
| Communication         | Total               | 10.49±1.85       | 11.45±1.56        | 10.22±1.84         | 4.676    |
|                       | Listen              | 2.62±0.82        | 2.76±0.63         | 2.59±0.87          | (0.000)  |
|                       | Secrets             | 2.45±0.71        | 2.33±0.56         | 2.48±0.74          |          |
|                       | Relationships       | 2.67±0.84        | 3.22±0.82         | 2.51±0.77          |          |
|                       | Conversations       | 2.75±1.04        | 3.14±0.87         | 2.64±1.06          |          |
| Family<br>atmosphere  | Total               | 10.33±2.06       | 11.10±0.87        | 9.95±2.07          | 7.097    |
|                       | Family harmony      | 2.66±0.90        | 3.06±0.69         | 2.55±0.92          | (0.000)  |
|                       | Family conversation | 2.75±0.88        | 3.49±0.68         | 2.55±0.81          |          |
|                       | Rejection           | 2.19±0.79        | 2.04±0.71         | 2.23±0.81          |          |
|                       | Comfort             | 2.73±0.89        | 3.10±0.68         | 2.62±0.91          |          |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 4.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 교사관계는  $7.25 \pm 1.64$ 로 인정이  $2.78 \pm 0.63$ 으로 가장 높고 교사와의 교류가  $1.95 \pm 0.87$ 로 가장 낮았다. 학교수업은  $7.88 \pm 1.28$ 이며 수업내용의 만족도가  $2.73 \pm 0.66$ 으로 가장 높고 주의력은  $2.44 \pm 0.74$ 로 가장 낮았다. 친구관계는  $7.31 \pm 1.04$ 이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2.89 \pm 0.70$ 으로 가장 높고 학급생활이  $1.91 \pm 0.69$ 로 가장 낮았다. 학교규칙은  $8.78 \pm 1.58$ 이고 규칙은  $3.26 \pm 0.92$ 로 가장 높고 주변활동  $2.50 \pm 0.70$ 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아동의 학교생활환경에서 교사관계는  $8.87 \pm 1.44$ 이고, 인정이  $3.18 \pm 0.49$ 로 가장 높고, 교사와의 교류가  $2.04 \pm 1.10$ 으로 낮았다. 학교수업은  $7.96 \pm 0.76$ 이며 수업내용의 만족도가  $3.14 \pm 0.41$ 로 가장 높고, 주의력이  $2.10 \pm 0.55$ 로 가장 낮았다. 친구관계는  $7.27 \pm 0.93$ 이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3.24 \pm 0.56$ 으로 가장 높고 학급생활이  $1.59 \pm 0.71$ 로 낮았다. 학교규칙은  $9.69 \pm 0.74$ 로 규칙이  $3.51 \pm 0.92$ 로 가장 높고 주변활동이  $2.49 \pm 0.68$ 로 가장 낮았다.

돌봄취약아동의 학교생활환경에서 교사관계는  $6.97 \pm 1.58$ 로 인정이  $2.66 \pm 0.62$ 로 가장 높고 교사와의 교류가  $1.93 \pm 0.80$ 으로 낮았다. 학교수업은  $7.86 \pm 1.36$ 이며 수업내용의 재미가  $2.71 \pm 0.84$ 로 가장 높고 주의력이  $2.53 \pm 0.76$ 으로 가장 낮았다. 친구관계는  $7.28 \pm 0.97$ 이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2.79 \pm 0.71$ 로 가장 높고 학급생활이  $2.00 \pm 0.66$ 으로 낮았으며, 학교규칙은  $8.67 \pm 1.61$ 로 규칙이  $3.19 \pm 0.91$ 로 가장 높고 주변활동  $2.50 \pm 0.70$ 으로 가장 낮았다(Table 4).

Table 4.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                          | Classification     | Total<br>(n=224) | General<br>(n=49) | Poverty<br>(n=175) | t<br>(P) |
|--------------------------|--------------------|------------------|-------------------|--------------------|----------|
| Teacher<br>relationship  | Total              | 7.25±1.64        | 8.87±1.44         | 6.97±1.58          | 5.467    |
|                          | Interaction        | 1.95±0.87        | 2.04±1.10         | 1.93±0.80          | (0.000)  |
|                          | Affection          | 2.52±0.74        | 3.04±0.54         | 2.38±0.72          |          |
|                          | Recognition        | 2.78±0.63        | 3.18±0.49         | 2.66±0.62          |          |
| School<br>lessons        | Total              | 7.88±1.28        | 7.96±0.76         | 7.86±1.36          | 0.497    |
|                          | Satisfaction       | 2.73±0.66        | 3.14±0.41         | 2.62±0.68          | (0.620)  |
|                          | Class interest     | 2.71±0.84        | 2.69±0.85         | 2.71±0.84          |          |
|                          | Attention          | 2.44±0.74        | 2.10±0.55         | 2.53±0.76          |          |
| Friendly<br>relationship | Total              | 7.31±1.04        | 7.27±0.93         | 7.28±0.97          | 0.676    |
|                          | Relationship       | 2.89±0.70        | 3.24±0.56         | 2.79±0.71          | (0.501)  |
|                          | Popularity         | 2.50±0.66        | 2.57±0.71         | 2.49±0.65          |          |
|                          | Class life         | 1.91±0.69        | 1.59±0.71         | 2.00±0.66          |          |
| School rules             | Total              | 8.78±1.58        | 9.69±0.74         | 8.67±1.61          | 2.076    |
|                          | Ambient activities | 2.50±0.70        | 2.49±0.68         | 2.50±0.70          | (0.041)  |
|                          | Behavior control   | 3.02±0.79        | 3.16±0.77         | 2.98±0.80          |          |
|                          | Rules              | 3.26±0.92        | 3.51±0.92         | 3.19±0.91          |          |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 5. 우울감

전체 아동 우울평균은 15.31±7.70, 일반아동의 우울평균은 7.20±2.81, 돌봄취약 아동의 우울평균은 17.58±7.09로 돌봄취약아동의 우울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 중 우울의 정도가 21이하 정상수준의 아동은 166명(74.1%), 22-25점의 정도의 우울 아동은 35명(15.6%), 26-28점의 중등도의 우울 아동은 10명(4.5%), 29점 이상의 매우 심한 우울 아동은 13명(5.8%)으로, 우울 정도 정상아동은 166명(74.1%) 우울감을 갖고 있는 아동은 58명(25.9%)이다.

돌봄취약아동 중 우울의 정도가 21이하 정상수준의 아동은 117명(66.9%), 22-25점의 정도의 우울 아동은 35명(20%), 26-28점의 중등도의 우울 아동은 10명(5.7%), 29점 이상의 매우 심한 우울 아동은 13명(7.4%)으로, 우울 정도 정상 아동은 117명(66.90%) 우울감을 갖고 있는 아동은 58명(33.1%)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일반아동은 우울감이 있는 아동이 없었고 돌봄취약아동만 우울감이 있었다(Table 5).

Table 5. Depression status of children

|                                | Total<br>(n=224) | General<br>(n=49) | Poverty<br>(n=175) | t/ $\chi^2$<br>(P) |
|--------------------------------|------------------|-------------------|--------------------|--------------------|
| Depression score               | 15.31±7.70       | 7.20±2.81         | 17.58±7.09         | 10.022             |
| Depression mood                | 2.88±1.96        | 1.20±0.84         | 3.34±1.92          | (0.000)            |
| Behavioural disorders          | 4.31±1.82        | 4.76±1.01         | 6.74±1.76          |                    |
| Loss of interest               | 3.80±2.95        | 3.14±1.06         | 6.54±2.88          |                    |
| Self-deprecation               | 1.91±1.37        | 0.17±0.85         | 1.26±1.29          |                    |
| physiological symptoms         | 2.42±1.18        | 0.43±0.98         | 1.70±1.09          |                    |
| A degree of depression         |                  |                   |                    |                    |
| Normal(≤ 21)                   | 166(74.1)        | 49(100)           | 117(66.9)          | 21.914             |
| Mild depression(22-25)         | 35(15.6)         | -                 | 35(20)             | (0.000)            |
| Severe depression(26-28)       | 10(4.5)          | -                 | 10(5.7)            |                    |
| A very severe depression(≥ 29) | 13(5.8)          | -                 | 13(7.4)            |                    |
| Depression status              |                  |                   |                    |                    |
| Normal(≤ 21)                   | 166(74.1)        | 49(100)           | 117(66.9)          | 21.914             |
| Depression(≥ 22)               | 58(25.9)         | -                 | 58(33.1)           | (0.000)            |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or N(%).



## B.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아동구분에 따른 우울감은 일반아동 중 모든 아동이 우울감이 없었고, 돌봄취약아동 중 우울감이 없는 아동은 66.9% 우울감을 갖고 있는 아동은 33.1%이었다( $\chi^2=21.914, P=0.000$ ). 전체 아동 중 학년에 따른 우울감은 4학년 8.3%, 5학년 24.2%, 6학년 44.6%( $\chi^2=21.656, P=0.000$ )로 학년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부모학력에 따른 우울감은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17.8%, 대학교 졸업 5.7%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59.3%( $\chi^2=43.391, P=0.000$ )이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14.8%, 대학교 졸업 8.1%,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49.4%( $\chi^2=35.693, P=0.000$ )으로 학력이 낮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감은 매우 건강 33.3%, 건강 25.0%, 보통 16.3%, 건강하지 못한 편 53.8%( $\chi^2=8.551, P=0.036$ )으로 차이가 있고, 체형에 따른 우울감은 매우 마른편 28.1%, 약간 마른 편 35.0%, 보통 12.6%, 살이 찢 편 52.9%( $\chi^2=18.729, P=0.000$ )으로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른 우울감은 유의확률( $P=0.174$ )로 유의하지 않았다.

돌봄취약아동의 학년에 따른 우울감은 4학년 11.4%, 5학년 29.6%, 6학년 58.0%( $\chi^2=23.812, P=0.000$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을 갖고 있는 아동이 많았고, 부모학력에 따른 우울감은 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23.8%, 대학교 졸업 8.3%,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64.0%( $\chi^2=32.163, P=0.000$ )이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55.7%, 대학교 졸업 19.3%,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13.6%( $\chi^2=27.074, P=0.000$ )로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감은 매우 건강 41.7%, 건강 32.4%, 보통 21.1%, 건강하지 못한 편 63.6%( $\chi^2=7.938, P=0.047$ )로 차이가 있었고, 체형에 따른 우울감은 매우 마른 편 36.0%, 약간 마른 편 42.4%, 보통 17.1%, 살이 찢 편 64.3%( $\chi^2=16.873, P=0.001$ )로 차이가 있었다(Table 6).

Table 6.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                | Among<br>total children<br>(N=224) |                 | Among<br>poverty children<br>(N=175) |                 |
|------------------------------|----------------|------------------------------------|-----------------|--------------------------------------|-----------------|
|                              |                | %                                  | $\chi^2$<br>(P) | %                                    | $\chi^2$<br>(P) |
|                              |                | Gender                             | Male            | 30.5                                 | 1.846           |
|                              | Female         | 22.5                               | (0.174)         | 27.4                                 | (0.044)         |
| Grade                        | 4              | 8.3                                | 21.656          | 11.4                                 | 23.812          |
|                              | 5              | 24.2                               | (0.000)         | 29.6                                 | (0.000)         |
|                              | 6              | 44.6                               |                 | 58.0                                 |                 |
| Education level of<br>father | High school    | 17.8                               | 43.391          | 23.8                                 | 32.163          |
|                              | University     | 5.7                                | (0.000)         | 8.3                                  | (0.000)         |
|                              | Without father | 59.3                               |                 | 64.0                                 |                 |
| Education level of<br>mother | High school    | 14.8                               | 35.693          | 13.6                                 | 27.074          |
|                              | University     | 8.1                                | (0.000)         | 19.3                                 | (0.000)         |
|                              | Without mother | 49.4                               |                 | 55.7                                 |                 |
| Subjective health<br>Status  | Very good      | 33.3                               | 8.551           | 41.7                                 | 7.938           |
|                              | Good           | 25.0                               | (0.036)         | 32.4                                 | (0.047)         |
|                              | Fair           | 16.3                               |                 | 21.1                                 |                 |
|                              | Poor/Very poor | 53.8                               |                 | 63.6                                 |                 |
| Subjective body<br>image     | Very thin      | 28.1                               | 18.729          | 36.0                                 | 16.873          |
|                              | Slim           | 35.0                               | (0.000)         | 42.4                                 | (0.001)         |
|                              | Ordinary       | 12.6                               |                 | 17.1                                 |                 |
|                              | fat            | 52.9                               |                 | 64.3                                 |                 |

## 2.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전체 아동 중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인식도에 따른 우울감은 상위-중위 수준의 경우 16.8%, 하위 수준 38.7%( $\chi^2=16.859, P=0.000$ )이며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아동 우울감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학원을 다니는 아동은 10.3%,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40.2%( $\chi^2=26.023, P=0.000$ )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았고, 방과 후 가족 유무에 따른 우울감은 항상 있거나 가끔 있는 경우 26.8%, 가끔 없는 경우 33.9%, 항상 없는 경우 8.9%( $\chi^2=12.191, P=0.002$ )로 차이가 있었다.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 우울감은 어머니, 아버지와 모두 사는 경우 9.9%,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사는 경우 38.2%, 그 외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등의 경우 63.2%( $\chi^2=49.239, P=0.00$ )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방’ 유무에 따른 아동 우울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chi^2=1.280, P=0.258$ ).

돌봄취약아동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인식도에 따른 우울감은 상위-중위 수준 24.4%, 하위수준 42.4%( $\chi^2=6.327, P=0.012$ )로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아동 우울감은 학원을 다니는 경우 14.5%,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47.5%( $\chi^2=21.131, P=0.000$ )로 차이가 있었다. 방과 후 가족 유무에 따른 우울감은 항상 있거나 가끔 있는 경우 35.7%, 가끔 없는 경우 38.8%, 항상 없는 경우 14.3%( $\chi^2=7.145, P=0.028$ )로 차이가 있었고, 가족구조에 따른 우울감은 어머니, 아버지와 모두 사는 경우 14.3%,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사는 경우 42.0%, 그 외의 경우 70.6%( $\chi^2=37.888, P=0.00$ )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았다. ‘내 방’ 유무에 따른 아동 우울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chi^2=0.496, P=0.481$ )(Table 7).

Table 7.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family characteristics

|   |                | Among<br>total children<br>(N=224) |                 | Among<br>poverty children<br>(N=175) |                 |
|---|----------------|------------------------------------|-----------------|--------------------------------------|-----------------|
|   |                | %                                  | $\chi^2$<br>(P) | %                                    | $\chi^2$<br>(P) |
| Perceived economic levels               | High-Middle    | 16.8                               | 13.614          | 24.4                                 | 6.327           |
|   | Low            | 38.7                               | (.000)          | 42.4                                 | (.012)          |
| Private room in the house               | With           | 29.1                               | 1.280           | 35.4                                 | 0.496           |
|   | Without        | 22.4                               | (.258)          | 30.4                                 | (0.481)         |
| Private academy after school            | Yes            | 10.3                               | 26.023          | 14.5                                 | 21.131          |
|   | No             | 40.2                               | (.000)          | 47.5                                 | (.000)          |
| Presence of family members after school | Always - Often | 26.8                               | 12.191          | 35.7                                 | 7.145           |
|   | Sometimes      | 33.9                               | (.002)          | 38.8                                 | (0.028)         |
|   | Never          | 8.9                                |                 | 14.3                                 |                 |
| Family                                  | Parents        | 9.9                                | 49.239          | 14.3                                 | 37.888          |
|   | Single parent  | 38.2                               | (.000)          | 42.0                                 | (.000)          |
|   | Etc.           | 63.2                               |                 | 70.6                                 |                 |

### 3.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따른 아동 우울감

전체 아동 중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부모양육태도는  $9.50 \pm 1.96$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부모양육태도는  $11.27 \pm 1.91$  ( $t=6.011$ ,  $P=0.000$ )로 차이가 있었고,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9.35 \pm 1.76$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의사소통은  $10.89 \pm 1.71$  ( $t=5.876$ ,  $P=0.000$ )로 차이가 있었다.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가족분위기는  $8.14 \pm 1.55$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은  $11.10 \pm 1.63$  ( $t=12.069$ ,  $P=0.000$ )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우울감이 있는 아동들의 가정생활환경 평균점수가 우울감이 없는 아동들의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돌봄취약아동의 경우에도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부모양육태도는  $9.50 \pm 1.96$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부모양육태도  $11.18 \pm 1.91$  ( $t=5.430$ ,  $P=0.000$ )로 차이가 있었고,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9.35 \pm 1.76$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10.66 \pm 1.73$  ( $t=4.702$ ,  $P=0.000$ )로 차이가 있었다.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가족분위기는  $8.14 \pm 1.55$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가족분위기는  $10.85 \pm 1.68$  ( $t=10.296$ ,  $P=0.000$ )로 우울감이 있는 아동들의 가정생활환경 평균점수가 낮았다(Table 8).

Table 8.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emotional characteristics

|                    | Total children     |                 |                | Poverty children   |                 |                |
|--------------------|--------------------|-----------------|----------------|--------------------|-----------------|----------------|
|                    | Without depression | With depression | t (P)          | Without depression | With depression | t (P)          |
| Parenting attitude | $11.27 \pm 1.91$   | $9.50 \pm 1.96$ | 6.011 (0.000)  | $11.18 \pm 1.91$   | $9.50 \pm 1.96$ | 5.430 (0.000)  |
| communication      | $10.89 \pm 1.71$   | $9.35 \pm 1.76$ | 5.876 (0.000)  | $10.66 \pm 1.73$   | $9.35 \pm 1.76$ | 4.702 (0.000)  |
| Family atmosphere  | $11.10 \pm 1.63$   | $8.14 \pm 1.55$ | 12.069 (0.000) | $10.85 \pm 1.68$   | $8.14 \pm 1.55$ | 10.296 (0.000) |

Data were expressed as mean $\pm$ SD.

#### 4.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아동 우울감

전체 아동 중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교사관계는  $5.93 \pm 1.64$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교사관계는  $7.71 \pm 1.36$  ( $t=7.411$ ,  $P=0.000$ )로 차이가 있었고,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학교수업은  $7.28 \pm 1.07$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은  $8.08 \pm 0.96$  ( $t=5.314$ ,  $P=0.000$ )으로 차이가 있었다.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학교규칙은  $8.07 \pm 1.32$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학교규칙은 학교규칙  $9.61 \pm 0.95$  ( $t=8.156$ ,  $P=0.000$ )로 차이가 있었고, 우울감이 있는 아동들의 학교생활환경 평균점수가 낮았다.

돌봄취약아동의 경우에도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교사관계는  $5.93 \pm 1.64$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교사관계는  $7.48 \pm 1.26$  ( $t=6.310$ ,  $P=0.000$ )으로 차이가 있었고,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학교수업은  $7.28 \pm 1.07$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의 학교 수업은  $8.13 \pm 1.03$ , ( $t=5.083$ ,  $P=0.000$ )로 차이가 있었다.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학교규칙은  $8.07 \pm 1.32$ , 우울감이 없는 아동은  $9.57 \pm 1.03$  ( $t=8.259$ ,  $P=0.000$ )으로 차이가 있었고, 우울감이 있는 아동들의 학교생활환경 평균점수가 낮았다( $P=0.000$ ). 친구 관계는 전체 아동( $t=0.496$ ,  $P=0.620$ )과 돌봄취약아동( $t=0.567$ ,  $P=0.572$ )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Table 8).

Table 9. Child depression according to School life adaptation

|                       | Total children     |                 |               | Poverty children   |                 |               |
|-----------------------|--------------------|-----------------|---------------|--------------------|-----------------|---------------|
|                       | Without depression | With depression | t (P)         | Without depression | With depression | t (P)         |
| Teacher relationship  | $7.71 \pm 1.36$    | $5.93 \pm 1.64$ | 7.411 (0.000) | $7.48 \pm 1.26$    | $5.93 \pm 1.64$ | 6.310 (0.000) |
| School lessons        | $8.08 \pm 0.96$    | $7.28 \pm 1.07$ | 5.314 (0.000) | $8.13 \pm 1.03$    | $7.28 \pm 1.07$ | 5.083 (0.000) |
| Friendly relationship | $7.30 \pm 0.90$    | $7.24 \pm 0.63$ | 0.496 (0.620) | $7.31 \pm 0.90$    | $7.24 \pm 0.63$ | 0.567 (0.572) |
| School rules          | $9.61 \pm 0.95$    | $8.07 \pm 1.32$ | 8.156 (0.000) | $9.57 \pm 1.03$    | $8.07 \pm 1.32$ | 8.259 (0.000) |

Data were expressed as mean $\pm$ SD.

### C.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우울감 관련요인

전체 아동의 학년에 따른 우울감은 4학년을 기준으로 6학년이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OR : 6.32, 95%CI : 2.16-18.48). 부모의 학력에 따른 우울감은 고등학교졸업을 기준으로 아버지 안계심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고(OR : 3.92, 95%CI : 1.83-8.44), 어머니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졸업을 기준으로 어머니 안계심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OR : 3.45, 95%CI : 1.62-7.35). 주관적인 체형에 따른 우울감은 유의하지 않았고, 주관적 경제 수준 인식도는 상위-중위를 기준으로 하위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OR : 2.02, 95%CI : 0.85-4.78). 방과 후 학원을 다니는 아동을 기준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OR : 5.08, 95%CI : 2.21-11.70). 방과 후 가족 유무는 항상 있다를 기준으로 항상 없다는 경우만 유의하였다(OR : 0.27, 95%CI : 0.09-0.80). 가족 구조는 부모님과 살고 있음을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사는 경우(OR : 3.77, 95%CI : 1.35-10.51), 기타의 경우 교차비가 높았다(OR : 14.64, 95%CI : 5.23-40.95). 가정생활환경은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고(OR : 0.59, 95%CI : 0.46-0.76) 의사소통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생활환경은 학교규칙이 가장 높고(OR : 0.53, 95%CI : 0.39-0.72) 친구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돌봄취약아동의 학년에 따른 우울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차비가 높았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6학년만 있었다(OR : 7.30, 95%CI : 2.35-22.68). 부모의 학력에 따른 우울감은 고등학교졸업을 기준으로 아버지 안계심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고(OR : 3.68, 95%CI : 1.67-8.15), 어머니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졸업을 기준으로 어머니 안계심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OR : 3.52, 95%CI : 1.62-7.67). 주관적 경제적 수준 인식도는 상위-중위를 기준으로 하위 교차비가 높았다(OR : 1.70, 95%CI : 0.66-4.34). 방과 후 학원을 다니는 아동을 기준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교차비가 높았다(OR : 3.72, 95%CI : 1.59-8.69). 방과 후 가족 유무는 항상 있다를 기준으로 항상 없다는 경우만 유의하였다(OR : 0.30, 95%CI : 0.10-0.94). 가족 구조는 부모님과 살고 있음을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사는 경우 (OR : 3.50, 95%CI : 1.17-10.42), 기타의 경우(OR : 15.98, 95%CI : 5.11-50.02) 교차비가 높았다. 가정생활환경은 돌봄취약아동도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고(OR : 0.59, 95%CI : 0.46-0.77) 의사소통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생활환경은 학교규칙이 가장 높고(OR : 0.50, 95%CI : 0.36-0.71), 친구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0).

Table 10.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 Independent variables                   |                | Among total children |            | Among poverty children |            |
|---|----------------|----------------------|------------|------------------------|------------|
|   |                | OR                   | 95% CI     | OR                     | 95% CI     |
| Grade                                   | 4              | 1.00                 |            |                        |            |
|   | 5              | 2.55                 | 0.89-7.31  | 2.58                   | 0.88-7.57  |
|   | 6              | 6.32                 | 2.16-18.48 | 7.30                   | 2.35-22.68 |
| Education level of father               | High school    | 1.00                 |            | 1.00                   |            |
|   | University     | 0.31                 | 0.07-1.45  | 0.31                   | 0.07-1.47  |
|   | Without father | 3.92                 | 1.83-8.44  | 3.68                   | 1.67-8.15  |
| Education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 1.00                 |            | 1.00                   |            |
|   | University     | 0.74                 | 0.20-2.82  | 0.93                   | 0.23-3.69  |
|   | Without mother | 3.45                 | 1.62-7.35  | 3.52                   | 1.62-7.67  |
| Subjective body image                   | Very thin      | 1.00                 |            | 1.00                   |            |
|   | Slim           | 1.20                 | 0.47-3.03  | 1.22                   | 0.45-3.30  |
|   | Ordinary       | 0.39                 | 0.14-1.08  | 0.45                   | 0.15-1.32  |
|   | fat            | 1.79                 | 0.49-6.52  | 1.79                   | 0.41-7.82  |
| Perceived economic levels               | High-Middle    | 1.00                 |            | 1.00                   |            |
|   | Low            | 2.02                 | 0.85-4.78  | 1.70                   | 0.66-4.34  |
| Private academy after school            | Yes            | 1.00                 |            | 1.00                   |            |
|   | No             | 5.08                 | 2.21-11.70 | 3.72                   | 1.59-8.69  |
| presence of family members after school | always-often   | 1.00                 |            | 1.00                   |            |
|   | sometimes      | 1.40                 | 0.69-2.85  | 1.14                   | 0.54-2.42  |
|   | never          | 0.27                 | 0.09-0.80  | 0.30                   | 0.10-0.94  |
| Family                                  | Parents        | 1.00                 |            | 1.00                   |            |
|   | Single parent  | 3.77                 | 1.35-10.51 | 3.50                   | 1.17-10.42 |
|   | Etc.           | 14.64                | 5.23-40.95 | 15.98                  | 5.11-50.02 |
| Parenting attitude                      |                | 0.59                 | 0.46-0.76  | 0.59                   | 0.46-0.77  |
| Communication                           |                | 0.96                 | 0.74-1.26  | 0.99                   | 0.76-1.31  |
| Family atmosphere                       |                | 0.33                 | 0.23-0.47  | 0.35                   | 0.24-0.50  |
| Teacher relationship                    |                | 0.31                 | 0.21-0.44  | 0.33                   | 0.22-0.49  |
| School lessons                          |                | 0.46                 | 0.32-0.66  | 0.46                   | 0.32-0.67  |
| Friendly relationship                   |                | 0.66                 | 0.42-1.03  | 0.73                   | 0.45-1.19  |
| School rules                            |                | 0.53                 | 0.39-0.72  | 0.50                   | 0.36-0.71  |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IV. 고 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에서 보호해야 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급식제공 및 학습지도, 체험학습,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지역사회연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취약아동을 포함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우울감 관련 요인에 대해 파악하여 이용아동들의 마음건강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개입방안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역아동센터 전체 이용아동의 우울감 평균점수는  $15.31 \pm 7.70$ 점이었고, 돌봄취약아동의 우울감 평균점수는  $17.58 \pm 7.09$ 점으로 돌봄취약아동의 우울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가 22점 이상의 우울감을 갖고 있는 아동은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58명(25.9%)이었고, 모두 돌봄취약아동이었다. 이는 아동의 우울감 관련 요인 중 경제적인 빈곤상태인 아동의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Lee,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미만의 아동들의 우울 및 불안 점수는  $2.14 \pm 3.35$ 점, 중위소득 100% 이상의 아동들의 우울 및 점수  $1.72 \pm 2.52$ 점이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대구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의 아동 우울감을 측정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우울감 수준 평균 점수는 15.17점이었고,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약 20% 이상의 아동이 우울상태로(Lee, 2005)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Kim & Seo, 2017). 또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이 있고, 온라인 학습, 야외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chi^2=21.656$ ,  $P=0.000$ ).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특히 아동 후기인 4학년, 5학년, 6학년은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Kim, 2009).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은 가정의 경제수준의 인식도, 가족구조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

감이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동의 우울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약 20%에 달하는 청소년이 우울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여자청소년은 27%, 남자 청소년은 13%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Lee, 2013). 그러나 초등학생의 우울정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우울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Oh, 2012),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우울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이라는 차이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부모가 없을 경우 우울감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우울정도가 높다는 기존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Oh, 2019),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졸업 미만으로 낮은 경우 대졸 이상의 경우 보다 자녀의 자살생각 및 우울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Park & Jang, 2013). 부모의 학력은 단순히 최종학력을 뜻하기 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건강지식 이해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 경제 수준에 따른 우울증상 위험의 관계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위험도는 낮았는데(Lee, 2012), 이는 아동이 느끼는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가 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며 실제로 낮은 가구소득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빈곤이 아동의 우울과 불안감을 높인다는 것이 검증되었다(Kim, 2015). 이러한 결과는 경제 수준이 낮은 부모들의 경우 무기력, 음주문제, 부부간의 불화 등의 행동으로 아동에게 정서적인 결핍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Jo et al., 2019). 또한 빈곤은 아동의 우울과 불안 및 비행에 누적적 위험요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알려져있다(Jang & Kim, 2014).

방과 후 활동이 우울, 공격성,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한 청소년들의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었다(Le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일반아동과 돌봄취약아동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다니는 학원이 있는 아동에 비해 다니는 학원이 없는 아동의 우울감이 높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방과 후 이용하는 학원은 대부분 합기도, 태권도 등 스포츠 바우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Kang, 2013).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 뿐 만 아니라 학원을 다니면서 교우관계를 다지고, 마음수련의 시간을 갖는 등의 행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19 전에는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뛰어 놀거나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신체적인 활동을 했었으나 현재는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 여부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이 양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결과(Song, 2014)는 본 연구의 양부모 가족의 우울감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아동이 느끼는 부모 한쪽의 결핍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족구조라는 단면적인 부분과 더불어 양육태도와, 경제 수준과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들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Kim, 2013). 이는 가족구조적인 결손으로 아동들은 경제적 빈곤이나 정서적 불안 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동 우울 관련 요인으로는 부모관련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부모의 관심, 가정의 화목 등이 보고되고 있다(Hong & Do, 2014). 부모는 아동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 스트레스 관련요인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정적 양육태도(Kim & Han, 201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Park et al., 2005)는 아동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우울감이 없는 아동에 비해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고, 가정생활환경 평균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았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의견을 존중받고, 충분한 애정을 받는다고 인지하지 않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므로,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한 부모교육이 아동의 우울감 감소를 위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감이 있는 아동의 학교생활환경 평균점수는 우울

감이 없는 아동에 비해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 우울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Yoon, 2019). 이는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낮을수록 우울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Choi & Kim, 2015).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의 적응도를 높인다면 아동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낮은 아동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학교생활 적응도 향상과 더불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의 지지,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우울감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분류는 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 및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 아동 전체와 일반아동, 돌봄 취약아동 각각을 대상으로 우울감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정서적 특성, 학교생활 등 다양한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마음건강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감 관련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용아동들의 마음건강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개입방안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 작성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12개소, 전라남도에서 15개소를 선정하여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6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표준편차,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역아동센터 전체 이용아동의 우울감 평균점수는  $15.31 \pm 7.70$  점이었으며, 돌봄취약아동의 우울감 평균점수는  $17.58 \pm 7.09$ 로 돌봄취약아동의 우울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가 22점 이상으로 우울감을 갖고 있는 아동은 전체아동 중 58명(25.9%)이고 모두 돌봄취약아동 이었다. 전체 아동의 경우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였고(OR : 6.32, 95%CI : 2.16-18.48),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OR : 3.92, 95%CI : 1.83-8.44), 또는 어머니가 없는 경우(OR : 3.45, 95%CI : 1.62-7.35) 우울감이 높았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 인식도는 상위-중위의 아동들에 비해 하위 아동들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고(OR : 2.02, 95%CI : 0.85-4.78),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방과 후 학원을 다니는 아동을 기준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다(OR : 5.08, 95%CI : 2.21-11.70). 방과 후 가족 유무는 항상 있다를 기준으로 항상 없다는 경우만 유의하였고(OR : 0.27, 95%CI : 0.09-0.80), 가족 구조는 부모님과 살고 있음을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사는 경우(OR : 3.77, 95%CI : 1.35-10.51) 기타의 경우 교차비가 높았으며(OR : 14.64, 95%CI : 5.23-40.95), 가정생활환경은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고(OR : 0.59, 95%CI : 0.46-0.76) 의사소통은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아동 중 학교생활 환경은 학교규칙이 가장 높고(OR : 0.53, 95%CI : 0.39-0.72) 친구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돌봄취약아동의 경우에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였고(OR : 7.30, 95%CI : 2.35-22.68),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OR : 3.68,

95%CI : 1.67-8.15), 어머니가 없는 경우(OR : 3.52, 95%CI : 1.62-7.67) 우울감이 높았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인식도는 상위-중위의 아동들에 비해 하위 아동들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고(OR : 1.70, 95%CI : 0.66-4.34),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OR : 3.72, 95%CI : 1.59-8.69), 방과 후 가족 유무는 돌봄취약아동도 항상 없다는 경우만 유의하였다(OR : 0.30, 95%CI : 0.10-0.94). 가족구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사는 경우(OR : 3.50, 95%CI : 1.17-10.42) 기타의 경우 (OR : 15.98, 95%CI : 5.11-50.02)교차비가 높았고,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고(OR : 0.59, 95%CI : 0.46-0.77) 의사소통은 유의하지 않았다. 돌봄취약아동도 학교규칙이 가장 높았으며(OR : 0.50, 95%CI : 0.36-0.71), 친구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근거 하여 아동의 우울감 감소를 위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신 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방과 후 아동이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이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동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마음건강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아동심리 지원서비스 개발 및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가 종결된다면 전반적인 아동의 우울감이 낮아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 Beck A.T, Ward C.H, Mendelson M, Mock, J, Erbaugh J.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1;4:561-571.
- Birmaher B, Arbelaez C, Brent D. Course and outcome of child and adolescent major depressive disorde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02;11:619-637.
- Choi AR. COVID-19, issues and tasks of childcar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0;11(4):1379-1390.
- Choi HW. The prevalence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depressive disorder. Graduate School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2010.
- Choi TS, Kim JK.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and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n the depression of 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15;22(12); 595-617.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 Hong YR, Do EY.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lower-income clas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4;18(2); 264-272.
- Kang SR, Heo KH, Jane J.L, Hollie H-S, Elizabeth S. State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s provided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rofessionals during COVID-19.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20;20(4);135-157.
- Jang HS, Kim KH.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development-role of cumulative risk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4;47;185-216.
- Jeon JC. The relations among the bullyi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0.
- Jeong MH, Hong SW, Yoou SG. Path analysis on impacts of service usefulness of community children-center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in poverty - Focusing on examin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016;12(1);99-127.

Jo MK, Jang WB, Moon UJ. The moderating role of children's perceived poverty in the effect of parental abusive behaviors and peer alienation on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19;23(4);775-795.

Kang HH.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of sports voucher, ego-resilience, and perception of empowerment of adolescent in the low-statu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3;22(5);491-507.

Kim HK, Lee YH, Moon SY, Kwon EJ.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oblems of low income children in underserved a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7;65-85.

Kim HS, Seo Y. The effect of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on children's happiness : The analysis on multi-groups of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f children with a single parent and children with two par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2017;19(4)1-24.

Kim EK. Impact of the word in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of the education effect - Difference of the educ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depressive charact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2018.

Kim JA, Han GR.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emotional probl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4;15(6);2,379-2,399.

Kim JH. Satisfaction of children for services provided in local childcare centers and impact of social support to their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Graduate School of Child welf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oosuk University. 2019.

Kim JJ. The influence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on family resilience in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Graduate School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2013.

Kim JK. The anxiety-depression according to children's ordinary stress: Focused on exploring the mediation variable. Korean Journal of Family Management. 2009;27(2)227-242.



Kim KH. Developmental pathway from household poverty to depression /anxiety-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15;39(3):129-159.

Kim PH, Yoon HM. Mediating effect of shame in the relationship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Rights*. 2014;18(4):601-620.

Kim SS.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hildren's happiness and their depress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6;34:91-108.

Kim SS, Kim JS. Expectations for school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cooperation in COVID-19 situations: A focus on child worker perception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20;52(0):203-229.

Kim SY, Ha JH, Hwang WS, Yu JH. Associ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in developing childhood depression and ADHD in a community low income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09; 20(2):76-81.

Kim YJ. A study on the effects of living environment on maladaptive behavior of poor children: Focusing on children using study rooms in daejeon.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2003.

Kovacs, M.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Bulletin*. 1985;21:955-988.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2021.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8&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8&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Lee KH.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overty, key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 smart-phone dependency,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8;27(1):5-21.

- Lee SA. Mediating effect of social skil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2013.
- Lee SH, Won JY, Kwon JD. The effect of after-school sports participation on youth's psychological variable(depression, aggression, anxiety).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 Youth Culture. 2012;31 ;85-119.
- Lee SM. The life-environment factors of influence upon a sense of depression in poor childre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2005.
- Lee T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community.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 Lee YJ, Lee JY.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level in local community child center use-from ansan city's cases-. Korean Journal of 21Century Social Welfare. 2010;7(2);53-7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cal children's center support project guide. 2020;48-4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2018.
- Oh HS. Correlations between mental health, depression level,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 rural area. J Korean Soc school Health. 2012;25(1);31-38.
- Oh JW.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on child depress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2019.
- Park DH, Jang SN. Influence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6);2667-2676.
- Park HH, Kim JA, Han GR.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upon the emotional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014;17(3);345-362.
- Poulton R, Caspi A, Milne BJ, Thomson WM, Taylor A, Sears MR.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experience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adult health: A life-course study. *Journal of Lancet*. 2002;1640-1645.

Shin Kyoung Min. Evidence-based treatments for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8;37(4):595-604.

Song SJ. The protective factors of family structure on child depression: Focusing 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014;107-127.

Wadsworth M. E, Raviv T, Reingard C, Wolef B, Santiago, C. D, Einhorn L. An indirect effects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 and child functioning: The role of children's poverty-related stre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2008;156-185.

Yoon JY.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adaptation to the school life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9.